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(제28호): 정기지표

여론속의 여輿론論

2019. 04. 26

오승호 부장

전화 | 02-3014-0167
e-mail | shoh@hrc.co.kr

HankookResearch

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

-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.
-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.
-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.
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,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.
- 정가지표-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.
- 정가지표는 국가, 사회,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.
-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.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,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.
-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.

운영책임

정한울 전문위원

전화 | 02-3014-1057
e-mail | hw.jeong@hrc.co.kr

조사실무

오승호 부장

전화 | 02-3014-0167
e-mail | shoh@hrc.co.kr

이동한 과장

전화 | 02-3014-1060
e-mail | dhlee@hrc.co.kr

구정태 연구원

전화 | 02-3014-1040
e-mail | jtkoo@hrc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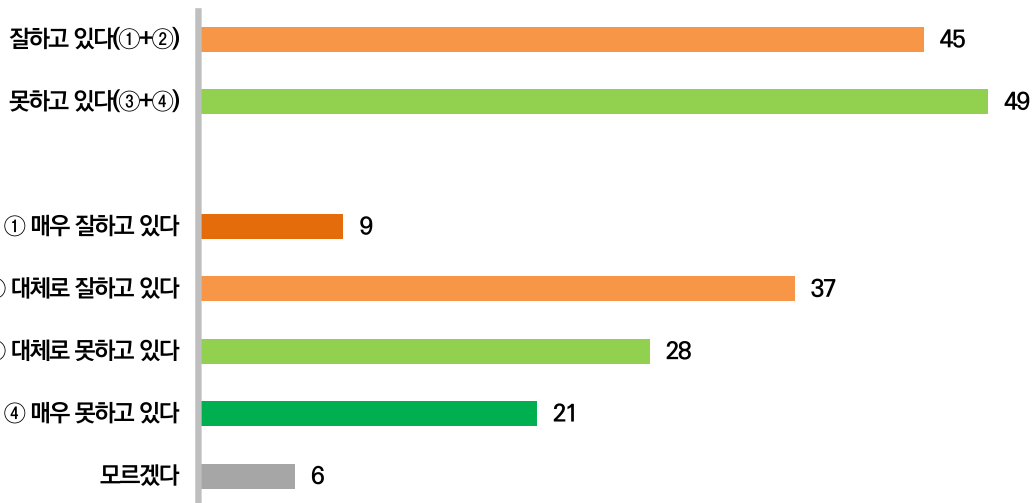
1 대통령 국정평가

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45%, 지난 조사 대비 3%p 감소

문재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5%로 지난 조사(48%) 대비 3%포인트 감소하였다. 작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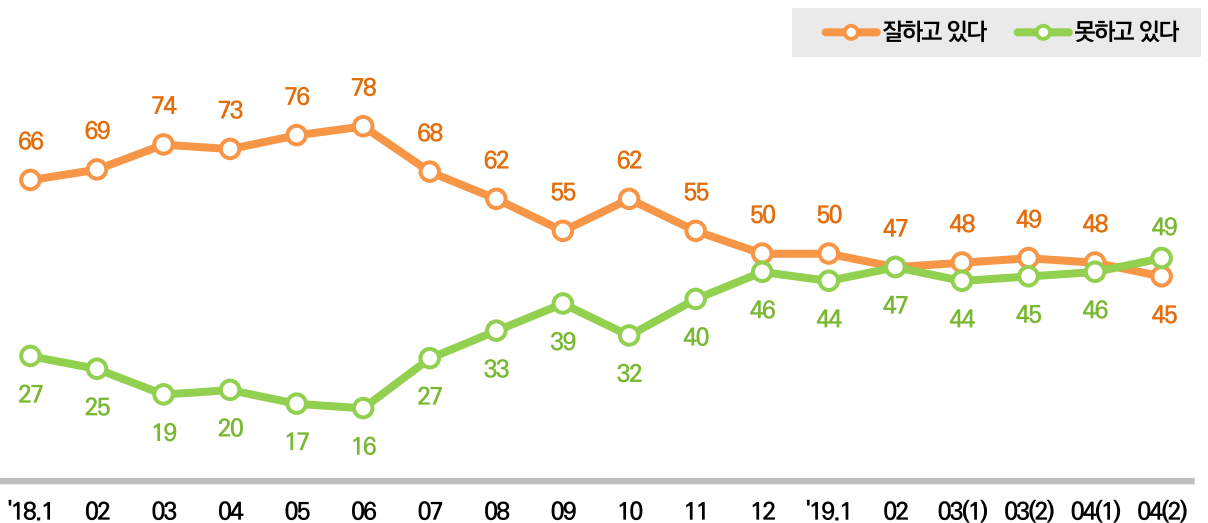
잘하고 있다 45%, 못하고 있다 49%

(N=1,000, %)



국정운영 긍정평가 비율 지난 조사 대비 3%p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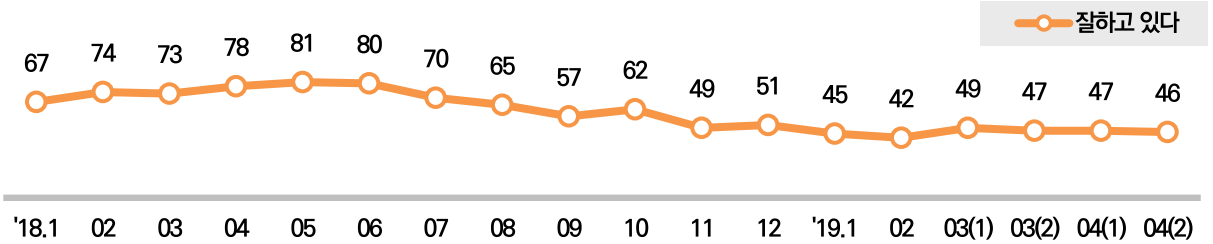
(N=1,000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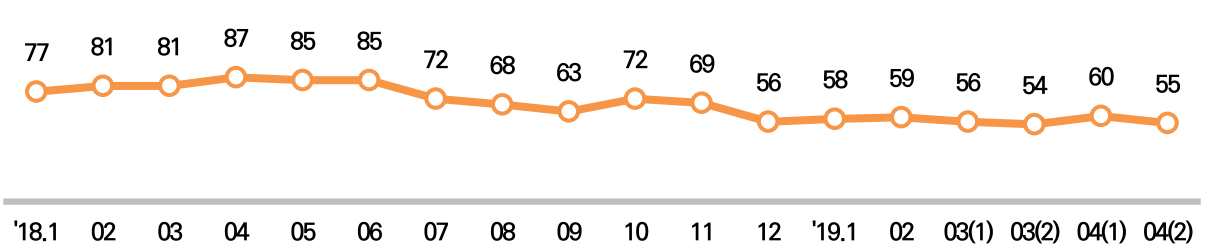
연령대별 국정운영 긍정평가 추이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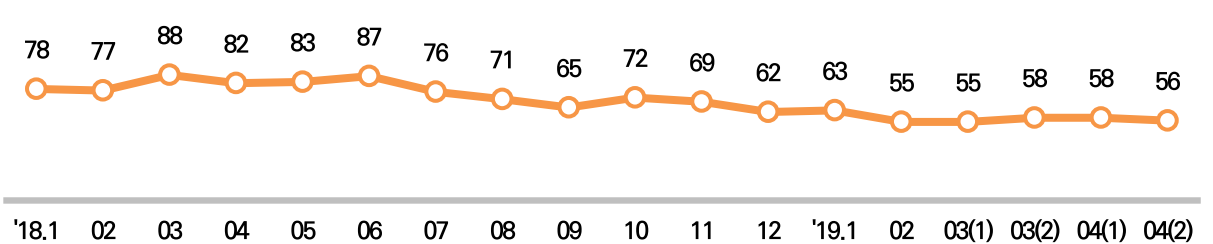
19~29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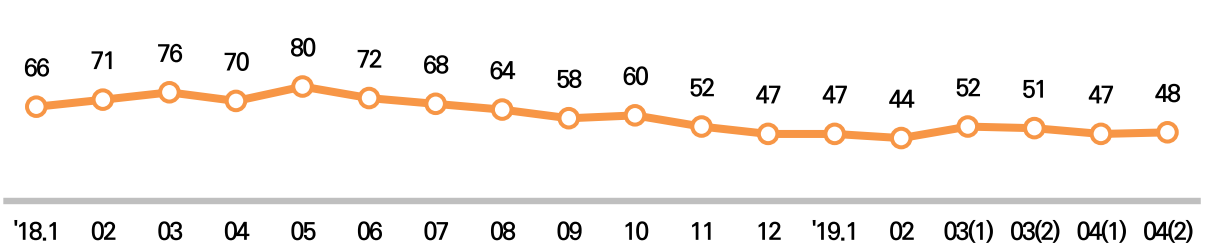
30~39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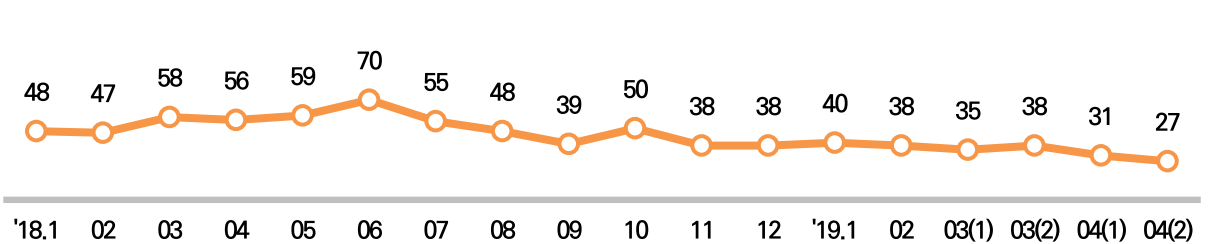
40~49세



50~59세



60세 이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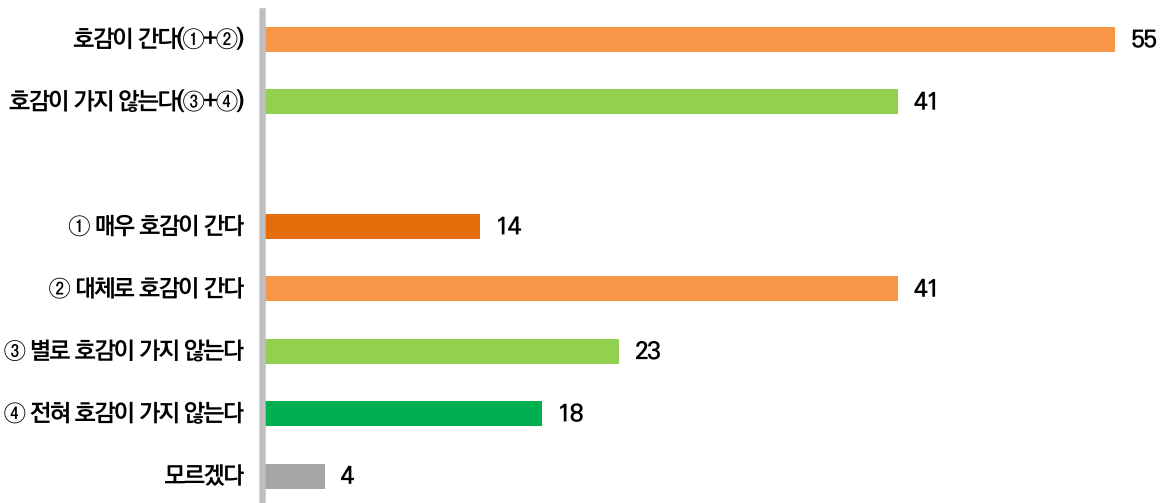
2 대통령 호감여부

대통령에게 호감이 간다 55%, 지난 조사 대비 변동 없음

대통령 호감여부에 대해서는 호감이 간다는 비율이 55%로 지난 조사(55%) 대비 변동이 없었다. 1월 조사 이후 대통령에 대한 호감 비율은 큰 변화가 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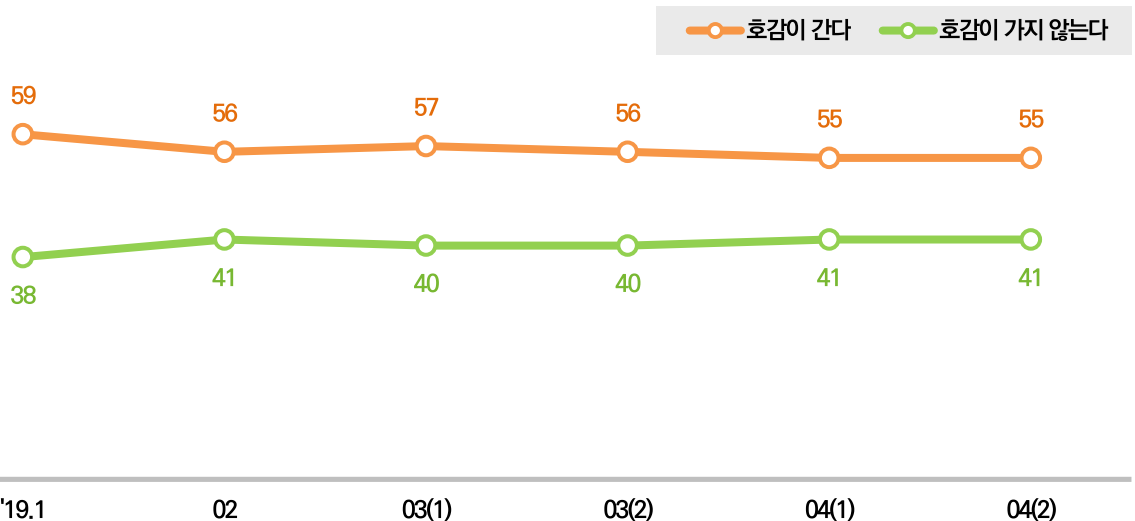
호감이 간다 55%, 호감이 가지 않는다 41%

(N=1,000, %)



대통령 호감 비율 지난 조사 대비 변동 없음

(N=1,000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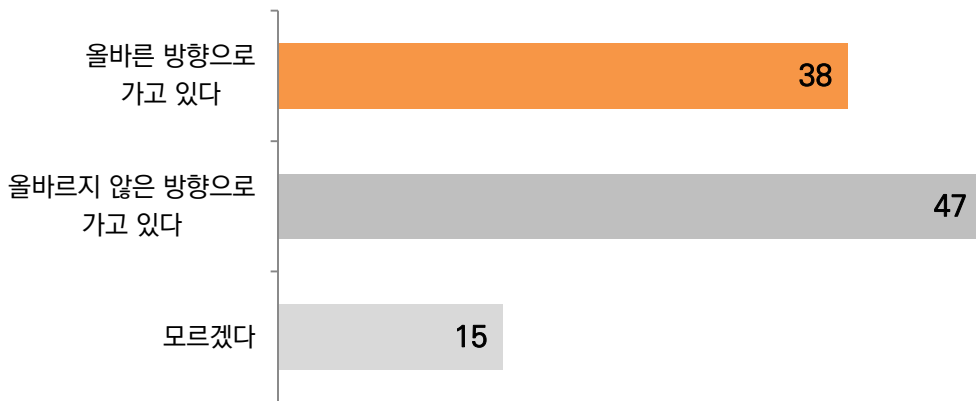
3 국정방향 공감여부

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38%, 지난 조사 대비 변동 없음

우리나라 국정방향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38%로 지난 조사(38%) 대비 변동이 없었다.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한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4월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으로 바뀌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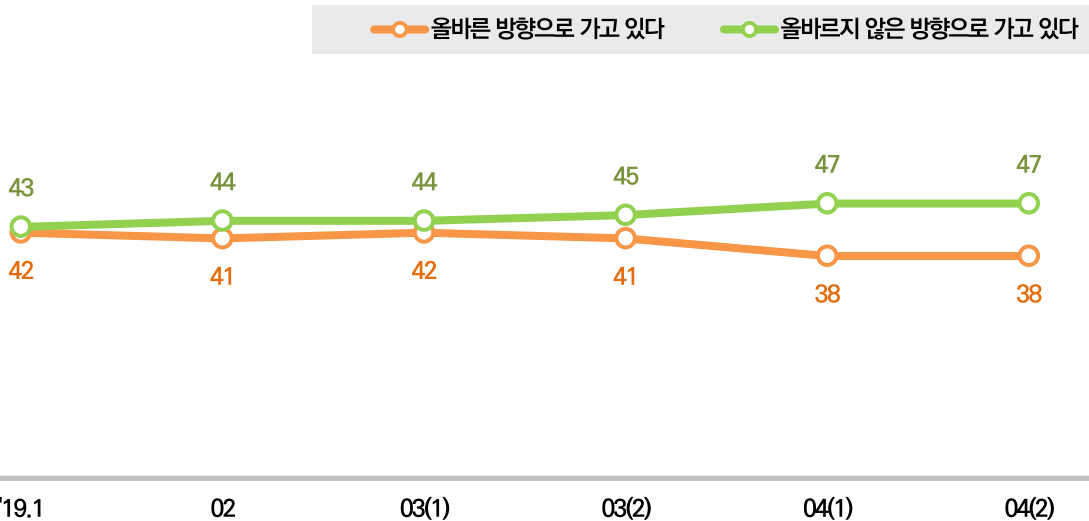
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38%, 그렇지 않다 47%

(N=1,000, %)



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율 지난 조사 대비 변동 없음

(N=1,000, %)



4 집단별 갈등인식

여당과 야당, 부유층과 서민층, 진보와 보수 순으로 집단 갈등이 아주 크다고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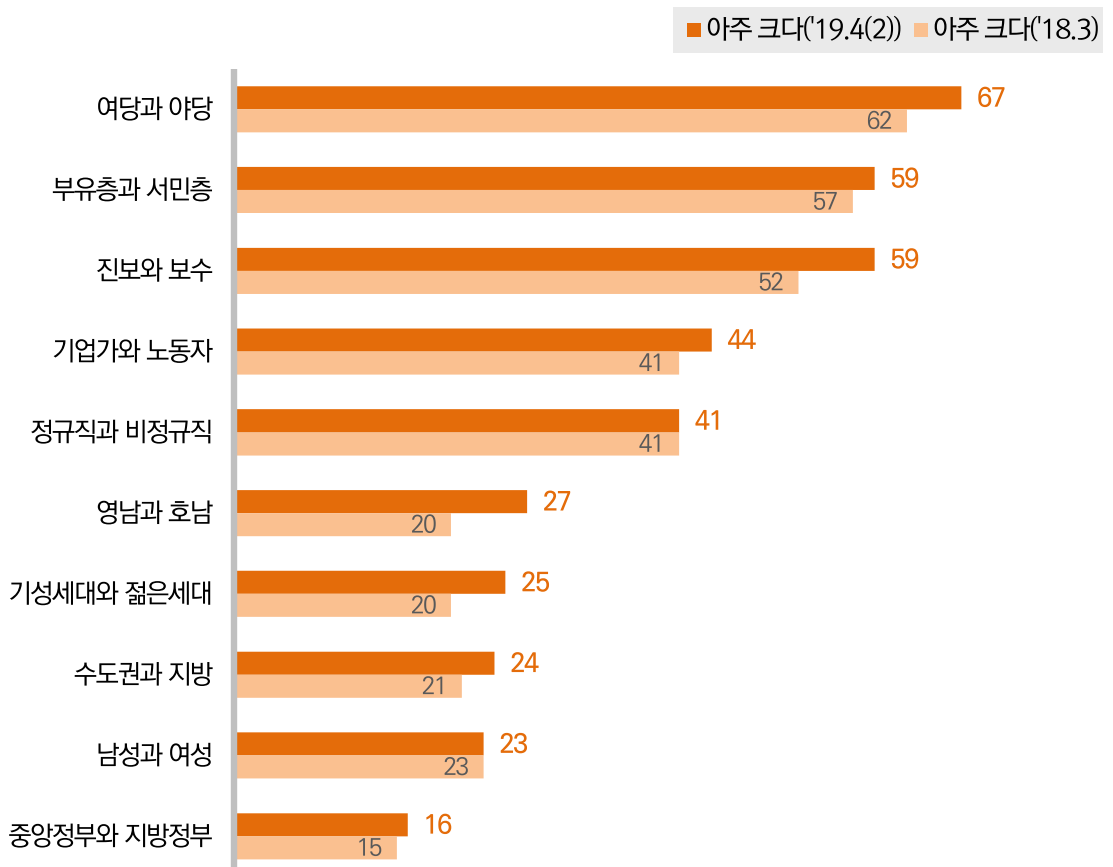
현재 우리나라의 갈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10개 집단별 갈등 정도를 4점 척도(아주 작다, 작은 편이다, 큰 편이다, 아주 크다)로 물어보았다.

그 결과 집단별 갈등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,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'아주 크다'는 응답이 67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부유층과 서민층(59%), 진보와 보수(59%), 기업가와 노동자(44%), 정규직과 비정규직(41%), 영남과 호남(27%), 기성세대와 젊은세대(25%), 수도권과 지방(24%), 남성과 여성(23%), 중앙정부와 지방정부(16%) 순이었다.

작년 3월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, '정규직과 비정규직', '남성과 여성'을 제외한 모든 집단의 갈등이 아주 크다는 비율이 증가하였다.

여당과 야당간 갈등 아주 크다 기준으로 가장 커

(N=1,000, %)



조사개요

구 분	내 용
모집단	•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
표집틀	• 한국리서치 MS 패널(2019년 3월 기준 약 44만명)
표집방법	• 지역별, 성별, 연령별, 학력별 비례할당추출
표본크기	• 1,000명
표본오차	•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,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$\pm 3.1\%$
조사방법	• 웹조사(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)
가중치 부여방식	•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가중치 부여(림가중) (2019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)
응답율	• 조사요청 8,192명, 조사참여 1,391명, 조사완료 1,000명 (요청대비 12.2%, 참여대비 71.9%)
조사일시	• 2019년 4월 19일~22일
조사기관	• (주)한국리서치(대표이사 노익상)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

여론속의 여輿론論

40 YEARS Hankook Research

